

Hana Infinity



2026 January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2월 동향

대내적 수급 여력 약화 속 한은 매파적 성향 등으로 상승 추세 지속 국면 시현. 대외적으로 연준 금리인하 결정과 시장의 비둘기적 인식 등이 상단 제한했지만, BOJ 금리 인상 결정 등도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

차기 연준의장에 대한 기대와 국내 GDP 상향 등에 따라 국고채 금리 혼조 출발 후, 미 9월 PCE의 시장 예상 부합에도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 및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약화 등으로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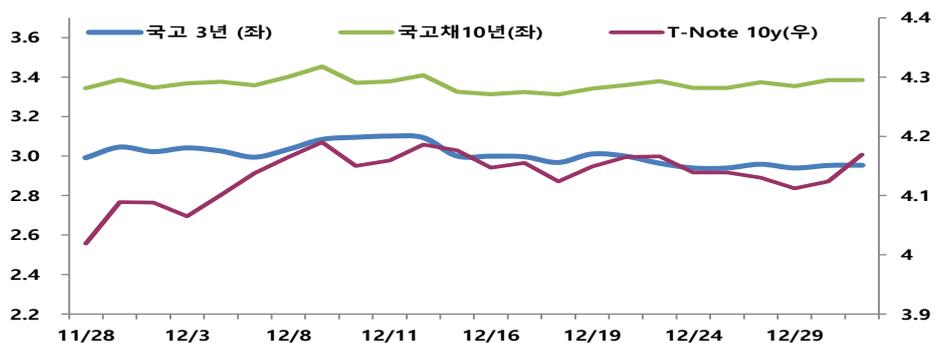
12월 FOMC의 금리인하 결정 속 미 실업 지표 약화 및 한은 총재 비둘기성 언급 등으로 하락 전환. 하지만 BOJ의 금리 인상 결정 후 큰 폭 상승 재전환하는 국면 시현

글로벌 금리 상승 영향과 한은 보고서 상의 중립적 매파 스탠스에 국고채 금리 혼조. 이어 외환시장 안정에도 수급 요인의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 등으로 상승 전환 마감

12월 평균
국고채(3년): 3.01%
T-Note(10년): 4.148%

- 월 초반, 차기 연준의장의 비둘기 성향 관련 영향과 국내 GDP 상향 소식 등으로 국고채 금리 혼조세 출발. 이어 9월 PCE의 시장 예상 부합에도 외국인 투자자 부정적 수급에 상승 전환
 - 월 초, 일본 금리 급등과 국내 GDP 상향에 따른 상승 압력이 차기 연준의장 비둘기 성향 기대 및 외국인 국채 선물 매수세가 상쇄하며 변동성 장세 시현. 이어 미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에도 외환시장 안정과 글로벌 금리 상승 폭 축소를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 전환 흐름
 - 이어, 미 9월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미 국채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매도 지속 등 부정적 수급 영향 반영 등으로 상승 전환한 국면
- 중반, 12월 FOMC 금리 인하 결정 후 비둘기적으로 시장이 인식한 영향 등으로 금리 하락 전환한 가운데, 미 실업 지표 약화 및 한은 총재의 비둘기성 언급도 국고채 시장 강세로 작용 이후, BOJ 금리인상에 따라 국고채 금리 방향성 전환 양상 시현
 - 월 중반,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된 가운데 시장의 비둘기적 해석 요인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
 - 이어, 미 고용지표의 실업을 주목 속 FOM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표했던 연준 위원들 언급 등이 혼재하며 소폭 하락 지속 후, 한은의 완화적 기조에 등락을 반복하던 국고채 금리는 BOJ 금리인상이 결정되자 큰 폭 상승으로 전환
- 후반, 일 국채 금리 상승세의 글로벌 금리 상승 영향에도 한은 금융안정보고서가 기존 중립적 매파 스탠스를 보임에 따라 국고채 금리 혼조세 시현. 이어, 원화 환율 하락에 따른 금리 하방 압력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하며 마감
 - 후반, 일본 국채 금리 상승세에 따른 글로벌 금리 동반 상승 압력에도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중립적 매파 기조 인식 등으로 국고채 금리 혼조 흐름 시현
 - 이후, 외환시장 안정 등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 상존에도 수급 측면의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1 월 전망

국내외 중앙은행 정책 영향이 주요하게 반영될 전망 속, 연준 매패 기조에도 시장 인하 기대 선반영과 한은 통화시장과 금융안정 증시, 주요국 매패적 통화정책 기조 등이 상충하며 3.0% 전후 등락 예상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0 ^(f)	2.8 ^(f)	2.85 ^(f)	2.90 ^(f)

연준 이례적 통화정책 성향 상충에도 1월 FOMC 이후 다수가 신중한 매패 기조로의 전환 예상. 그럼에도 시장의 노동시장 약화 경계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 등이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호주 인하 사이클 종료 후 물가 상방 압력에 따른 매패 성향 및 일본 또한, 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한 추가 금리인상의 시장 기대 영향 등이 글로벌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월 국고채(3Y) 금리는 2.90%-3.05%

- 지난 FOMC의 투표 결과는, 연준내 통화정책 성향이 뚜렷이 갈리고 있는 방증으로 보임. 하지만 1월 FOMC는 이중 책무에 대해 다수가 신중한 매패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그럼에도 시장의 고용시장 냉각 증시 측면 인하 기대 선반영 등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 높일 전망
 - 지난 12월 FOMC 금리동결 투표 결과는 이례적 반대표가 3이 나오며 이중 책무에 대한 통화정책 성향이 뚜렷이 갈렸다는 방증으로 보임. 하지만 1월 회의는 다수가 신중한 매패 기조 보일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성장 기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 증대되었음에도, 시장고용시장 리스크 증시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 기대 선반영 등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 영향 미칠 전망
- 최근 호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에 따른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후, 동결 기조 전환 요인 및 일본 중앙은행 추가 금리인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의 조기 인상 기대감 반영 등이 국내외 금리 상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최근 글로벌 금리 영향 요인 중 호주 통화정책이 물가 재반등 우려, 노동시장 견조함 등으로 인하 종료 후 인상 전환 가능성 등 매패 분위기 형성 등이 글로벌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보임
 - 여기에, 일본 정부 재정확대 정책에도 BOJ가 금리 인상 단행 후, 추가 시그널을 주지 않은 측면이 시장의 추가 인상 기대를 약화시켰지만, 여전히 인상 사이클에 있다는 측면의 영향이 국내외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12월 초중반 내내 지속된 고회율로 국내 물가 상방 압력 재차 높아진 상황. 외환시장 안정으로 그 영향이 소폭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1월 금통위는 환율 연계 등을 고려 신중한 동결에 무게 둘 전망. 여기에 여전히 한은이 금융안정 증시라는 측면도 금리 동결 지지할 요인
 - '25년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다소 환율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하반기 내내 지속된 고회율 영향으로 국내 물가 상방 압력 재차 높아진 국면. 한은은 이러한 고회율의 경제에 대한 부작용 등을 상당부분 고려하며 다소 매패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전망
 - 여기에, 정부의 확장성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한은 금리 인하 여력 완화 등으로 금융안정 증시 기조 이어갈 것이라 측면도 동결 기조 속, 국고채 금리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내 주요 당국자들의 정책 기조, 물가 증시 우위의 회귀 가능성 호주,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매패성 전환 및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전히 노동시장 약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의 연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선반영

달러/원 환율

12월 동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 확대되며 1,480원대까지 상승했으나, 외환당국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와 확산 효과에 따른 수급 여건 개선 속에 급락 후 1,440원선 하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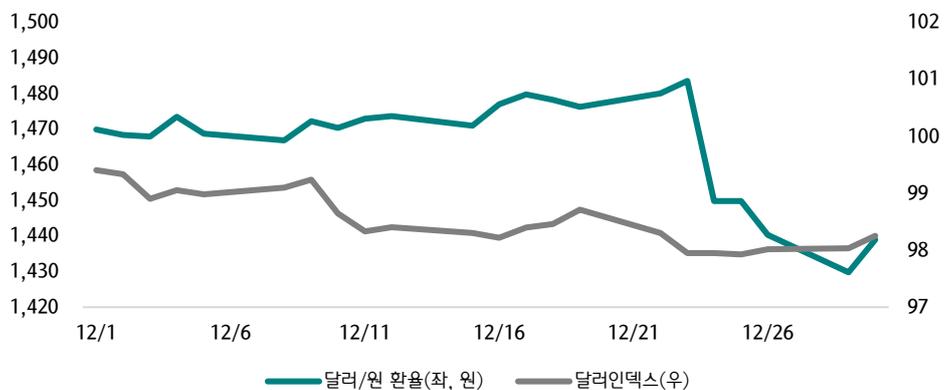
연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에도 향후 경로는 매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강세를 자극. 여기에 수급상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도 환율 상승세를 뒷받침

12월 FOMC 금리인하 결정과 파월 의장의 비둘기 발언에 따른 달러 약세에도 저가 매수세 속 수급 쏠림 지속되자 1,480원대로 상승. 이후 당국 경계감 강화되자 상단은 제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환율 상승세 이어지며 1,480원 넘어섰으나, 정책 당국이 강력한 외환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내자 빠른 속도로 하락, 1,430원 후반 수준에서 '25년 종가 마감

- 월초, 예상 부합한 미 PCE물가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확신에도 매파적 인하 가능성에 달러 반등한 가운데, 수급상 견조한 달러 수요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1,470원 수준 유지
 - 월초, BOI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따른 엔화 강세와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영향에 소폭 하락 출발했으나, 결제수요 등 매수 우위 수급 지속되면서 반등 후 1,470원 전후 수준에서 등락
 - 미 9월 PCE물가 전월대비 0.2%로 컨센서스 부합하자 시장은 연준 금리인하 기정사실화했으나, 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에 강달러 나타난 가운데 수급 쏠림 더해지며 제차 반등
- 월 중반, 예상보다 도비시했던 12월 FOMC에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원화 절하 폭 확대되며 1,480원대 진입, 이후 외환당국의 국내 외화 유입 촉진 방안 마련 등에 추가 상승은 제한
 - 중반, 연준 금리인하 결정과 고용 하방 위험에 대해 우려한 파월 의장 발언 등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FOMC 결과에 하락했으나, 저점 인식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자 상승 전환 후 1,470원대 초반 횡보
 - 수급 쏠림으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 속 1,480원대로 상승한 가운데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거래 연장 및 정부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발표 등에 경계감 강화되며 상단 제한
- 후반, 수급 쏠림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에 1,480원대로 올라서며 연고점 위협했으나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환율 안정 조치에 3거래일 만에 50원 넘게 급락하며 1,430원 후반대 마감
 - 후반, 매수세 중심 수급 여건에 1,484원까지 오름폭 확대하며 연고점 수준 근접했으나, 외환당국의 강력한 환율 안정 의지 표명과 수급 쏠림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발표 등에 30원 넘게 급락
 -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도에 나선 가운데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재개 소식과 당국의 환율 안정 대책 총동원에 1,420원대로 추가 하락했으나 저점 인식 속 매수 심리 강화되자 1,439원에 연말 종가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12월 달러/원 평균환율 : 1,466.4
12월말 달러/원 환율 : 1,439.0

1 월 전망

차기 연준 의장의 완화적 성향 기대와 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환율 하락에 힘을 실는 영국이나, 엔화 동조화 영향과 저가 매수세 등 대내외 여건 고려하면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10 ^(F)	1,430 ^(F)	1,410 ^(F)	1,380 ^(F)

연준은 양대 책무 중 물가 안정 중시 기조 속 동결 기조 유지할 것으로 예상. 이에 1월 FOMC 금리동결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비둘기파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인하 기대 선반영 속에 달러인덱스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며 1월 FOMC 동결 가능성 높아 보임. 하지만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 자극하며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질 전망
 - 지난 12월 FOMC는 양대 책무 중 고용 우선 속 3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했으나 결정 과정에서 연준 내 부적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미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 연준은 당분간 인플레이션 관리에 집중하며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초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금리인하에 우호적인 비둘기 성향 인사를 낙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시장에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며 달러 약세 압력 우위 보일 측면은 환율 하락 견인할 것으로 판단

당국의 강력한 시장 안정 노력 속에 환율 상승세는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매수 우위 수급과 엔화 약세와의 동조화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환율 하락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임

- BOI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충하는 경제적, 정치적 환경 제약 속에 추가 인상 어려워 보이며, 이에 따른 엔화 약세 영향 전이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최근 BOI는 금리인상 결정하며 통화완화 조정 필요성 언급했으나, 경제 여건 상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인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 기조 또한 BOI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른 엔화 약세에 원화도 동조화될 가능성 유념할 필요
 - 엔화와 대조적으로, 위안화는 수출기업들의 연말 위안화 환전 수요와 중국 제조업 회복세 등에 크게 강세를 보이며 '23년 이후 처음 달러당 7위안 선을 하회. 하지만 원화의 위안화 동조화 현상이 약해진 점을 고려할 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1월 달러/원 환율
1,425~1,455원 예상

- 정책 당국의 시장 안정화 의지와 국내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은 원화 강세 견인하겠으나, 저점 매수세가 하단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 유의미한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전망
 - 당국의 가용한 정책 수단 총동원에 시장의 환율 상승 기대가 일부 누그러지면서 1400원 중반 수준으로 다소 안정화된 영국. 아울러 12월 들어 거주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크게 축소된 점도 수급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저점 인식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하단 지지할 전망
 - 한편,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 나타날 경우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또한, 금융안정 문제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 대외 리스크 상존한 여건에 1월 금통위 금리동결 전망되는 점도 한-미 금리차 유지 속 환율 상승 억제할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 추가 인상 지연 가능성 및 엔화 약세 동조화 · 저점 인식에 따른 달러 매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둘기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지명 가능성과 달러 약세 · 당국의 시장 안정화 의지

이종통화

엔/원 전망

1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6.0
12월 엔/원 평균환율 : 939.4

1월 엔/원 예상범위 : 905~925원

일본 물가 상승세에 따른 시장 금리인상 기대에도 추가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 속 정부의 초반 재정확대 정책 의지 등이 엔화의 점진적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 (엔화 동향) 12월 긍정위 앞두고 금리인상 신호를 보낸 우에다 BOJ 총재의 발언에 크게 강세를 보이던 154엔대까지 하락 후 일본 북동부 강진 발생 소식에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 중반, 12월 FOMC가 시장 우려보다 도비시했다는 평가에 달러 대비 강세로 돌아섰으나, BOJ 금리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결 가능성 높게 전망되자 엔화 절하 압력 거세지며 157엔대 진입. 후반, 일본 당국자들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약세 흐름 다소 완화되면서 156엔대 마감
- (엔/원 전망) BOJ 금리인상 결정 이후, 추가 인상에 대한 정보 부재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엔화 강세 다소 제한된 흐름 시현. 하지만, 연초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가능성 속에 중단기 이후로 BOJ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 등이 엔화의 점진적 약세 기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 다만, 대외적 시장의 연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반영 등이 달러인덱스 약세를 지속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은 엔화의 약세 흐름도 제한하며 156~157엔대 흐름 예상
- 지난 12월 긍정위 금리인상 결정 후, 추가 시그널 부재로 인한 시장 실망감 등으로 엔화는 재차 약세 전환 연초부터 정부 확장재정정책 가능성, 추가 금리인상 지연 전망 등이 엔화 약세에 영향 요인
- 다만,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 선반영 등이 달러화 약세를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이 엔화 약세 제한할 가운데, 엔/원 환율은 원화의 금융시장 1월 효과, 시장안정화 요인 등으로 915원 전후 예상

유로/원 전망

1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715
1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716.2

1월 유로/원 예상범위 : 1,640~1,700원

유로존 내 물가 상승세가 완화된 가운데 중부유럽 전쟁 휴전가능성 배제 영향 등이 유로 약세 요인으로 판단. 다만, 미 1월 금리정책의 인하에 대한 시장 선반영 등이 달러 약세 통해 유로의 상대적 강세 지지에 영향 미칠 전망

- (유로화 동향) 유로존 서비스업 경기가 2년 반 만에 가장 빠른 확장세 보이면서 강세 출발했으나, 미 실업지표 개선 소식에 달러 반등하자 약세로 전환. 중반, 슈나벨 ECB 이사의 금리인상 관련 발언에 1.17달러대로 빠르게 올라섰으나, 12월 ECB 회의에서의 예상 부합한 동결 결정과 매파 신호 부재에 되돌림 시현. 후반, 독일 수입물가 상승세 등 ECB 인하 종료 전망에 1.18달러대 진입했지만, 러-우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양상 보이자 1.17달러대로 하락 마감
- 미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선반영 등에 의한 달러 약세 흐름이 소폭 유로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유로존내 물가 상승세가 강하지 않고, 중부유럽 전쟁의 직접적 지속 가능성 등이 상대적 유로화 약세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1월 FOMC에서 추가 금리인하의 시장 기대 반영은 달러화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이는 유로의 상대적 강세 지지할 요인. 다만, 유로존내 물가상승세가 강하지 않고, 중부유럽 전쟁이 미국 휴전안에도 상호 이해 상충으로 상당 기간 지속 우려가 상존한 측면 등은 유로 약세를 다소 강하게 견인할 전망
- 유로/원 환율은 지난 연말 원화의 시장안정화 정책 효과 다소 이어지며 1,660원까지 하락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한국 휴장(신정) [휴장]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홍콩, 중국(신정) 2026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 2025년 실적 기준 결산배당부터 적용 한국 증권거래소 상장 : 코스피 0% → 0.05%, 코스닥 0.15% → 0.20% 2026년 법정 최저지급 인상(1만320원, +2.9%) [IT] 반도체 12월 수출 데이터 [자동차] 현대차/기아 12월 도매 판매 데이터 안 12월 수출/입(YoY +8.4%, +1.2%) 무역수지	2 26년도 첫 주식 거래일 [휴장] 일본(신정 연휴) 2026년도 첫 주식 거래일 : 오전 10시 개장, 종료는 연행과 동일 한국은행, 대출채권 담보 긴급연식 지원 제도 도입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향 20%로 상향 안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49.4) 미 11월 건설지출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1.8) 유 12월 HCOB 제조업 PMI[F]	3 전미경제학회(ASSA)(~5) : 미국 AEA 중심 가장 큰 규모의 경제학술회의 [자동차] 현대차/기아 12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 미국 12월 판매 데이터
4 LG 윌드 프리미어(World Premiere) : LG전자 혁신과 비전 공개 행사, AI 솔루션 공개 삼성전자, 삼성 기술 포럼(~6) 미 12월 ISM 제조업 PMI(48.2) 고용(44), 신규주문(47.4) 생산(51.4), 재고(48.9) 중 12월 레이팅독 종합 PMI[F](51.2)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F](52.1) 유 1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6.2) 안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5 CES 2026(~9) : 올해 주제는 'Innovators Show Up'. AI, 로봇, 모빌리티, 스마트홈 등 정사신 공개 CES 기조연설: AMD, 지멘스, 캐터필러, 레노버 등 젠슨황 엔비디아 CEO 라이브(한국시간 오전6시) : AI 관련 언급 주목, AI 생태계 전반에 영향 미 12월 S&P 글로벌 종합 PMI[F](53.0)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F](52.9) 유 12월 HCOB 종합, 서비스업 PMI[F]	6 CES 2026(~9) CES 2026(~9) : 올해 주제는 'Innovators Show Up'. AI, 로봇, 모빌리티, 스마트홈 등 정사신 공개 CES 기조연설: AMD, 지멘스, 캐터필러, 레노버 등 젠슨황 엔비디아 CEO 라이브(한국시간 오전6시) : AI 관련 언급 주목, AI 생태계 전반에 영향 미 12월 S&P 글로벌 종합 PMI[F](53.0)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F](52.9) 유 12월 HCOB 종합, 서비스업 PMI[F]	7 지준일 지준일(지급준비일) CES 엔비디아X지멘스 세션: 산업용 AI 협업 주목 2026 국제 모터사이클 박람회(~9) 미 11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7670k) 12월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ADP취업자 변동(-32k) 유 12월 CPI[P](YoY +2.1%) CPI 근원[P](YoY +2.4%) 일 12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8 옵션만기일 한국 옵션만기일 미 10월 수출/입(MoM +0.6%, +3.0%) 11월 소비자신용지수 12월 Challenger Job Cuts(YoY +23.5%)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3.2%) 유 11월 실업률(YoY 6.4%) PPI(MoM +0.1%, YoY -0.5%) 12월 소비자기대지수[F] 일 12월 소비자기대지수(37.5) 공적기계 추주[P]	9 미 고용보고서 [음식료] FAO 세계 식량가격지수 2026 일본 도쿄 오토살롱 박람회(~11) 미 12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64k)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69k) 시간당 평균 임금(MoM +0.1%) 실업률(4.6%) 중 12월 통화공급 M2(YoY +8.0%) 유 11월 소매판매(MoM +0.0%, YoY +1.5%) 일 11월 섀넥스, 동행지수[P]	10
11 JP모건 웰스캐어 컨퍼런스(~15) :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웰스캐어 행사. 주요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M&A, 딜, 투자유치 등 [채권] 미국 3년물, 10년물 국채 입찰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안 12월 1~10월 수출/입(YoY +17.3%, +8.0%) 미 11월 건축여가[F] 12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12 JP모건 웰스캐어 컨퍼런스 [휴장] 일본(성년의 날) JP모건 웰스캐어 컨퍼런스(~15) :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웰스캐어 행사. 주요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M&A, 딜, 투자유치 등 [채권] 미국 3년물, 10년물 국채 입찰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안 12월 1~10월 수출/입(YoY +17.3%, +8.0%) 미 11월 건축여가[F] 12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13 미 CPI, 한일 정상회담(~14) 한일 정상회담(~14) : 이 대통령 방일 예정. 안보, 경제-통상 협력 등 논의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2026 영국 런던 섬유-직물 전시회(~14) 미 1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9) CPI(YoY +2.7%) CPI 근원(YoY +2.6%) 일 12월 경기관찰조사 현행(48.7)	14 Beige Book 연준 베이지북 공개 : FOMC 2주 전에 발표하는 연준 경기 동향 보고서 안 11월 통화공급 M2(MoM +0.9%) 12월 수입가(MoM +2.6%, YoY +2.2%) 수출물가(MoM +3.7%, YoY +7.0%) 미 11월 PPI, PPI 근원 12월 기준주택매매(MoM +0.5%) 중 12월 수출/입(YoY +5.9%, +1.9%) 무역수지 일 12월 통화량 M2(YoY +1.8%)	15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1월 금융통화위원회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로 4연속 동결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미 11월 수입물가, 수출물가 12월 소매판매, 소매판매 근원 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0.2) 뉴욕 엔지니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3.9) 유 11월 산업생산(YoY +2.0%), 무역수지 일 12월 PPI(MoM +0.3%, YoY +2.7%)	16 미국 옵션만기일 [유틸리티]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공시 2026 독일 뮌헨 광학 전시회(~18) 화학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번호 의무 기재 시행 미 12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1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20) NABH 주택시장지수(39) 일 12월 전국, 도쿄 백화점 판매	17
18 세계경제포럼(WEF)(~23) [휴장] 미국(마틴 루터 킹 데이) 세계경제포럼(WEF)(~23) : 세계 경제와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하는 비영리 회의. 경제, 지정학, 기후, 기술발전(AI), 사회문제 등 토론 유 12월 CP[F](YoY +2.1%) CPI 근원[F](YoY +2.4%) 일 11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F] 3차산업지수(MoM +0.9%)	19 세계경제포럼(WEF)(~23) [휴장] 미국(마틴 루터 킹 데이) 세계경제포럼(WEF)(~23) : 세계 경제와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하는 비영리 회의. 경제, 지정학, 기후, 기술발전(AI), 사회문제 등 토론 유 12월 CP[F](YoY +2.1%) CPI 근원[F](YoY +2.4%) 일 11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F] 3차산업지수(MoM +0.9%)	20 [채권] 미국 1년물 국채 입찰 콕스웨이브-오픈시, 멀트 에이전트 해커톤 개최 2026 미국 국제 파워젠 전시회(~22) 2026 중동 국제 방산 박람회(~22) 안 12월 PPI(YoY +1.9%) 미 12월 신규주택매매 1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미 12월 신규주택매매, 건축여가[F] 영국 CPI 상승률 MoM, YoY 미 MBA 모기지 시장지수 1월 ZEW 경기전망지수(33.7)	21 [채권]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일본 오토모티브월드 전시회 2026(~23) 안 1월 1~20월 수출/입(YoY +6.8%, +0.7%) 미 12월 주택착공건수 미결주택매매, 건축여가[P] 영국 CPI 상승률 MoM, YoY 미 MBA 모기지 시장지수	22 BOJ 금융정책위원회(~23) BOJ 1월 금융정책위원회(~23)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75%로 25bp 인상. 임금, 물가 외안환 상승세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 AI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프레임워크)법, 고정형AI 등 위험기반 분류, 투명성 의무 강화 내용 안 4Q GDP[A](QoQ +1.3%, YoY +1.8%) 미 3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T] 1월 캔자스시 제조업활동 일 12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6.1%, +1.3%)	23 안 1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1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S&P 글로벌 제조업 PMI[P] 캔자스시 연준 서비스업 활동 유 1월 HCOB 제조업, 종합, 서비스업 PMI[P] 일 12월 전국, 국내 CPI 1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S&P 글로벌 제조업 PMI[F] 일 BOJ 금리결정	24
25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미 11월 내구재 주문[F] 제조업수주 1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11월 섀넥스, 동행지수[F] 독일 IFO 기업활동지수 미 시카고 연준 국가 활동지수	26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미 11월 내구재 주문[F] 제조업수주 1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11월 섀넥스, 동행지수[F] 독일 IFO 기업활동지수 미 시카고 연준 국가 활동지수	27 미국 FOMC(~28) 미국 1월 FOMC(~28)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3.50~3.75%로 25bp 인하 [채권]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미 11월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12월 건축여가[F]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리치몬드 연준 경기현황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12월 PPI 서비스	28 BOJ 12월 금정책 의사록 공개 파리 글로벌 평화 회의(~31) : 세계 평화, 기후, 디지털 거버넌스 등 현안 논의 2026 일본 도쿄 국제 우주 산업 박람회(~30) 미 신규주택 판매 미 내구재 주문 MoM 일 BOJ 통화정책 의사록 호주 CPI 상승률 YoY 캐 RBC 금리결정	29 [채권] 미국 7년물 국채 입찰 미 11월 수출/입, 무역수지 12월 PCE 물가, 근원 PCE 물가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FED 금리결정, 기자회견 일 소비자신뢰지수 독일 Cif 소비자 신뢰지수	30 [건설] 주택건설 실적 통계(분양, 인허가, 착공 등) 미 12월 PPI, PPI 근원 1월 MNI 시카고 PMI 유 12월 실업률 4Q GDP[A](QoQ +0.3%, YoY +1.4%) 일 12월 실업률,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광공업생산[P] 1월 도쿄CPI, 소비자기대지수	31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